

“한국 결핵 퇴치의 정도(正道), 잊혀가는 한국의 정(情)에서 찾을 수 있다”

대한결핵협회 창립 60주년 기념행사에서 ‘제25회 복십자대상’을 수상한 연세대학교 국제진료센터 인요한 소장. 수상소감으로 “제가 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 가족을 대표해 주는 상이라 생각합니다. 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을 맞아 수상하게 돼 더욱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라고 전하는 그는 자신을 한없이 낮출 줄 아는 사람이었다.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은, 진짜배기 한국인 인요한 소장을 연세대학교 국제진료센터에서 만나보았다.

연세대학교 국제진료센터 인요한(印耀翰) 소장



인요한 교수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 교수(1991~현재)
- 재단법인순천기독교결핵 재활원 상임이사(1992~현재)
- 재단법인 유진벨 이사장(2000~2003(적십자인도장))



“지난 100년간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간 질병이 결핵입니다. 다행히 남한은 소멸하여가는 추세이나 북한은 여전히 결핵과 투쟁 중입니다. 다가오는 통일 한국을 대비해 대한결핵협회가 그 중심에서 소외계층에 남아있는 병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에 침투한 병까지 살펴볼 수 있는 깊고 넓은 시야로 접근해주길 바랍니다.”

1895년 진 외증조부(유진 벨(배유지) 선교사)로부터 이어져 온 나눔을 통한 선교 정신을 4대째 잇고 있는 인요한 소장이 간절히 전하는 말이다.

인요한 소장은 결핵 퇴치를 위한 노력으로 1992년부터 고향인 순천의 기독교재활용양원 상임이사로서 직접 운영에 관여하며 국내 결핵 환자는 물론 북한의 결핵 환자 치료를 위해 헌신해오고 있다.

순천을 왕래하며 환자와 가족을 자주 만나 마음의 상처까지 돌보며 환자들의 재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은 물론 1997년 1월 17일 첫 북한 방문을 시작으로 북한 내 ‘큰물피해 대책위원회’(보건성 산하)의 요청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하는 결핵 환자들을 위해 치료 및 약품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2000년에는 본격적인 북한 결핵 퇴치 사업을 위해 재단법인 유진벨을 설립하여 이사장으로서 재임 기간 3년 동안 약 260억 원의 식량 및 의약품, 의료장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또한, 북한 결핵 병원 및 요양소를 대상으로 하는 ‘파트너 패키지 프로그램’을 개발, 북측과 합의하여 지정 기탁 체계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북한 내 50여 곳에 결핵요양소에 정기적으로 패키지 지원물품을 지원해오고 있다.

대한결핵협회는 이에 지난 11월 6일 60주년을 맞아 그에게 제25회 복십자대상을 수여했다.

하지만 수상소감에서 “제가 특별히 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 가족을 대표해 주는 상이라 생각합니다. 대한결핵협회 60주년 기념을 맞아 수상하게 돼 더욱 뜻 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

하는 그는 자신을 한없이 낮출 줄 아는 사람이었다.

앞으로 협회가 유진벨재단과 더불어 북한 내에 결핵예방병원 및 배양시설을 설립하길 바란다고 전하는 그는 배양시설 설립의 중요성에 대해 거듭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지금 북한은 다제내성 결핵 해결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만약 해 주요양병원이 있었던 자리에 결핵예방병원 설립 추진을 한다면 순항할 줄로 압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이 북한 결핵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배양시설을 설립 추진하는 것인데, 우리의 실정에 맞추기보다는 북한의 시스템 안에서 힘을 실어줘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인 소장의 인생철학이기도 한 북한 내 결핵시설 설립 추진을 한국의 정(情)에서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제 조부가, 부모님이 그리고 제가 한국을 사랑하고 남아있게 된 것은 바로 이 정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50년간 한국의 정은 너무도 많이 변했습니다. 동서남북 화합은 물론 세대 간 갈등 등 사회통합이 힘든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의 이 같은 말에서 의외로 우리 사회가 정을 다시 찾는다면, 북한 결핵사업 추진 또한 순항할 것임을 읽을 수 있었다.

“결핵퇴치 사업으로 통일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결핵협회가 부디 앞장서서 통일로 가는 많은 관문 중에 통일을 앞당기는 기회를 꼭 만들길 바랍니다.”

2014년 한해엔 정부 및 관계부서가 이를 알아 우리 모두의 소원이기도 한 그의 소망이 꼭 이뤄질 수 있도록 기대를 모아보자. †